

APEC Engineer에 대한 域內 動向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PEC Engineer Project and FEISEAP

Over lapping area to Engineering field between the FEISEAP and APEC Engineer Project



글 | 許 堧
(Huh, Ginn)
화약류관리기술사,
APEC Engineer 심사등록위원회 한국대표,
동남아태평양공학단체연합회(FEISEAP) 회장.

1. FEISEAP 동남아태평양공학단체연합회

FEISEAP은 非政府 非利益단체로 1978년 泰國工學團體가 제창하여 UNESCO의 지원을 받아 發足했으며 WFED(世界工學團體聯合)의 회원이기도 하다.

기술발전을 통해서 지역간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필자는 1983년 처음으로 科技總(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을 대표해서 참가하였고 그후 1985년에는 제4차 총회 및 workshop 회의를 우리 나라의 창원에서 유치, 당시 한국기술사회 성낙정 부회장의 협조로 성공리에 끝맺은 바 금일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1998년~2000년에는 FEISEAP 부회장으로 2000년 3월~2002년 3월까지 회장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FEISEAP 회의를 주최하게 되어있다.

이로서 1985년에 이어 우리 나라로서는 두 번째 FEISEAP 總會를 10월에 準備하게 된다.

FEISEAP Meeting

년 월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 내용
1983	Malaysia	FEISEAP Meeting(허진 대표)
1985	창원	FEISEAP 총회 및 교육훈련위원회(성낙정 의장, 허진, workshop 공동의장)
1996. 4	北京	FEISEAP 총회에서 허진 대표 제안에 따라 科技總 名譽를 技術士會로 하고 改正承認받음.
1997. 8	Manila	FEISEAP 교육훈련위원회(허진 대표)
1997. 10	香港	FEISEAP Seminar 허진 대표 참석/논문발표
1998. 4	東京	10차 총회 및 운영, 기술위원회 허진 대표 부회장 被選(1998. 3~2000. 3)
1999. 5	Bangkok	집행 및 기술위원회 허진 대표/Polmate Seminar 정충혁 대표 논문 발표
1999. 10	香港	FEISEP 專門技術委員會
2000. 4 (예정)		FEISEP 총회 및 환경 Seminar 허진 대표 회장 피선(2000. 3~2002. 3) 전상백 사무총장 지명

2. APEC Engineer Project

1996년 APEC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에서 FEISEAP의 추천에 따라 APEC Engineer Project를 發足시킴으로서 NGO인 FEISEAP와 GO인 APEC Engineer가 공존하게 된 것이다. APEC Engineer Meeting은 1997년 9월 제1차 운영위원회가 Manila에서 개최되었으나 때마침 FEISEAP 회의가 끝날 무렵이라 Observer 자격으로 APEC Engineer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흥분을 금치 못한 채 귀국하고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교육부가 Counterpart임을 확인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後續節次를 받지 않은 채 한국대표를 보내 지도 않았다.

APEC Engineer의 중대성을 감안 교육부를 설득하여 官民關聯業體의 會晤를 召集, 결론은 과학기술부가 주관토록 해야된다는 것이었으나 當事局은 3개월이 되도록 지연할 뿐 시간은 흘러 결국 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APEC Engineer 심사등록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때가 1999년 4월로 우선 한국심사등록위원회를 발족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 원래 1998년 12월까지 호주 사무국에 제출했어야 할 심사보고서를 급한 대로 작성, 7월 동경에서 개최된 APEC Engineer Meeting에 한국대표로 참석함으로써 급한 불은 끈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꼭 이루고 말겠다는 의지가 성공한 것이다. 그 후 건설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항중 금일에 이르고 있다.

그간 APEC Engineer에 대해 우리의 입장에서 본 견해를 「APEC 기술사의 域內 상호인정에 대한 동향」(기술사지 '99년 8월호)와 지난 10월 29일 제29회 한·일기술사회의에서 발표한 영문 「日本과의 APEC Professional Engineer의 상호인정을 제의한다」 등을 발표한 바 있으나 本稿에서는 그간 참석했던 Expert Advisory Group 회의('99년 7월 28일~29일) 및 APEC

Engineer 운영위원회('99년 11월 5일~6일), 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된 역내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APEC HRD-WG APEC Engineer Project

년 월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 내용
1996. 1	Newzealand	APEC Engr. 상호승인(WG Stage-1 Project)
1997. 8	Manila	APEC Engr. Meeting(Workshop회의, 허진 대표 observer 참석)
1998. 11	Sydney	The Monitoring Committee 설치합의
1999. 2		APEC Engr. 심사등록위원회 설치안 대통령님께 건의(FEISEAP 부회장 자격)
1999. 4	Sydney	APEC Engr. 1차 조정위원회(허진 대표 참석)
1999. 7	東京	2회 APEC Engr. 2차 조정위원회 및 2차 운영위원회
1999. 11	Sydney	심사보고발표(허진 대표 참석), 3회 운영위원회(건설교통부 신과장 참석)
2000. 6 (예정)	Vancouver	조정위원회(Assessment Statement)

3. 각국의 APEC Engineer 5 요건 허가

1) 인정 또는 승인된 공학과정을 마친 자

Washington Accord에 가맹된 5개국, 기타는 승인된 공학과정을 졸업한 자. 후자는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이며 그중 일본, 한국, 필리핀은 기술자의 자격시험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자격심사를 하고 있다.

2) 자기의 판단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自國內에서 평가되어야 함. 시험을 시행하는 나라는 캐나다, 일본, 한국, 필리핀 등이며 면접과 논문심사를 하고 있는 나라는 홍콩, 말레이시아이며 능력기준에 의한 査定을 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이다.

3) 졸업 후 7년 이상의 실무를 가진 자

여기서는 Part time의 평가방식과 감리자가 보는 집중적 경험에 대해서 割増係數를 곱한 숫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4) 적어도 2년간은 중요한 기술업무의 책임 있는 자리에 종사했어야 한다. 중요한 업무의 정의에 대하여 일본 발언에서는 「소규모 Project에서는 책임자가, 대규모 Project에서는 부분적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토목 기술자의 예를 MRA~MRE의 Case Study를 예시했다. 이에 대해서 나라마다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한국을 대표하는 필자는 지금 논의된 것을 참고로 하며 심사위원의 다수결에 의해서 판단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물론, 설계 감리업무를 뜻하는 것이다.

5) 충분한 水準으로 지속적인 기술능력의 개발과 관리가 뒤따를 것 각국에서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검사(Audit)의 System이 있을 것으로 그 외 윤리규정, 개인의 責任態勢에 대해서 평가서가 기술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각국이 Entry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과 일본은 Civil, structure 2개인데 비하여 타국은 상기 2개 업종 외에 Geotechnical, Environment Mechanical, Electrical, Industrial, Mining, Chemical의 9개 업종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9개 업종 내에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Australia ; Civil, Structural, Geotechnical, Environmental, Mechanical, Electrical, Industrial, Mining, Chemical, Building Services, Civil, Structural, Geotechnical, Environmental

Canada ; Mechanical, Electrical, Industrial,

Mining, Chemical

Hong Kong ; Building, Building Services, Chemical, Civil, Control Automatic and Instrumentation, Electrical, Electronic, Environmental, Gas, Geotechnical, Information, Marine & Naval Architecture, Materials, Manufacturing, Mechanical, Structural

Indonesia ; 9 disciplines

日本 ; Civil, Structural

韓國 ; Civil, Structural

Malaysia ; Civil, Structural, Geotechnical, Environmental, Mechanical, Industrial, Mining Chemical, Electrical

Newzealand ; Civil, Electrical, Environmental, Chemical, Geotechnical, Mechanical, Structural

Philippine ; Civil, Structural, Geotechnical, Environmental and Sanitary, Electrical, Mining

일본과 한국은 모든 제도가 유사한 것으로 2개국끼리 별도의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6) 9개 업종 중 먼저 Entry한 토목은 모든 국가들 간에 공통점이 많아서 큰 문제가 없으나 구조는 그렇지 않다. 우리 나라의 구조는 토목구조와 건축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구조분야가 단일화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국은 건축가 대학과정인 5년인데 비하여 우리 나라와 일본은 4년제이다. 따라서 구조기술사로서의 취득한 학점은 물론 차이를 가지고 있다.

지난 6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UIA 건축가 총회에서도 APEC Engineer의 구조분야와의 관계를 분명한 線을 긋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할 문제이다.

Architect 건축가와 Architectural Engineer 건축사와의 관계가 건축의 건설관리와 건축장비업종도 APEC Engineer로서 Entry 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조정위원회 회의(Coordinating Committee)

'98년 11월 APEC Engineer Flame Work 수정과 창립승인 '99년 11월 5일(金) 제1회 운영위원회의(각국의 Monitoring Committee 대표)는 Sydney에서 개최되었으며 조정위원회 헌장을

심의 통과시켰다.

제2회 운영위원회의는 Project Stage 3으로 '99년 11월 5일 Sydney 회의로서 最終회를 마쳤다.

이어서 2000년 6월 Vancouver 회의에서는 운영규칙순서심의, 심사기준, 기술분야 해결의 조정, 추가업종 등 외에도 지난 회의 때 토의되었던 2년간의 중요경험, 심사의 기준, CPD 등의 추가 토의가 예상됨으로 참석에 앞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CPD에 대해서는 윤리 교육이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되어 있는 바 최근 일본 기술사회에서 譯編한 바 있는 Engineering Ethics를 구매하게 되어 우리 기술사회에도 제출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교육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다.

(원고 접수일 2000. 1. 12)



1999. 11. 4~7까지 시드니에서 개최된 APEC Engr. 운영 및 조정위원회